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친구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관 중 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니라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충청권교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순근



제5회 중현 찬양의 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11월 19일(금) 오후 7시 본당

제5회 중현 찬양의 밤이 11월 19일(금) 오후 7시 본당에서 열렸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사 43:21)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갖는 금번 찬양의 밤에는 8개 찬양대(실로암, 호산나, 시온, 가브리엘, 벨렐, 아멘, 임마누엘, 할렐루야찬양대)와 4개의 오케스트라(벨렐, 아멘, 임마누엘, 할렐루야), 그리고 3개의 연주팀(밴드벨렐과 이, 만돌린, 크로마코프)과 남성중창단이 참가하여 성도들과 더불어 찬양의 축제를 벌였다.

중현의 찬양대들은 그동안 할 수 있는 대로 곡과 가사를 외워서 찬양함으로써 더욱 잘 준비된 신령한 예배를

위해 아름답게 헌신해 왔다. 이에 따라 교회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은 중현교회의 예배에서 가장 인상적인 면들 중 “찬양”을 빼놓지 않고 평가해 왔다. 모든 중현의 찬양대들은 금번 찬양의 밤을 위해서도 지난 2개월 전부터 혼신의 힘을 다해 준비해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위해 전 찬양대가 하나되어 아름답고 하모니를 이루게 될 것이다.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금번 찬양의 밤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찬양대원들과 호흡을 같이하여 주님의 성령을 찬송하면서, 특별히 지난 일년을 돌아보며 감사를 회고하는 복된 은총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99 교사수련회 심령의 부흥으로 준비하는 2000년의 교회학교 한주일 앞으로

‘최최로 예수를 알게 하라’는 주제로 11월 22일과 23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99 교사수련회가 이제 한 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진정한 교회학교의 부흥은 교사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교사, 성령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사, 그리고 기도하는 교사로 다시 거듭나는 은총을 갈망하며 여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제1, 2, 3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각 부서의 모든 교사들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위원장 및 각 부서의 부장, 지도로 구성된 준비위원 및 집행위원들로 정기적인 기도회를 통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해 오고 있다.

교사수련회 준비위원 및 행사진행요원 기도회
일시: 오늘(14일) 오후 3시 30분
장소: 교육관 307호
대상: 1, 2, 3 교육위원장, 각 부 부장, 지도, 부감, 처장

준비위원 기도회
일시: 11월 16일(화) 오전 6시(새벽기도회 후)
장소: 교육관 109호
대상: 1, 2, 3 교육위원장, 각 부 부장, 지도

1교구 특별새벽기도회 11월 15-20일

1교구는 내일(15일)부터 20일까지 엿새 동안 특별새벽기도회를 실시한다. 이 기도회는 22일 실시하게 되는 추수 감사절에서의 축조 전도와 수능 시험준비를 위한 것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교구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힘을 모으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계속되는 교구별 초청전도집회

교구별 태산초 초청전도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7교구는 11월 9일(화) 오후 7시부터 강동구민회관에서 150명의 태산초를 포함하여 총 530명이 모여 이웃 초청잔치를 가졌고, 14교구는 11월 11일(목) 오후 6시에 갈릴리움에서 태산초 60여명을 초청하여 교구식구들을 포함하여 200여명이 집회를 가졌으며, 13교구는 11월 12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메추라기홀에서 태산초들을 초청하여 전도집회를 가졌다. 한편 11교구는 11월 13일(토)에 중현교회에서 태산초들을 초청하여 교구식구들과 친교와 복음 전도의 시간을 가졌다.

성도들은 전도된 새가족들이 중현의 가족들 사이에서 잘 정착하고 빠른 시간 안에 복음의 진리 안에서 교구식구들 및 온 성도들과 하나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였다.

감사절 국제음식축제 5백명 한정 초청키로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영어교육부와 외선부, 대학부가 연합하여 준비하는 감사절 국제음식축제가 이제 한 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축제 진행부는 금번 행사의 성적이 11개교의 음식을 시작하면서 외국 문화를 익히고 교회내 젊은이들 및 외선부 가족들과 더불어 친교와 선교의 비전을 나누는 귀중한 만큼, 이 성격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 5백명 한정으로 초대권을 무료 배부키로 했다.

3교구 사랑의 잔치 “사랑의 피로 하나됩니다”

3교구는 11월 20일(토) 오후 5시부터 만나홀 및 갈릴리움에서 사랑의 잔치를 연다. 행사는 식사 및 달란트 발표대회, 찬양 및 율동, 예배, 친교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단기 선교사 2명 추가 단기 평신도선교사들 이렇게 파송됩니다

지난 10월 당회 및 11월 당회를 통해 확정된 중현 단기 평신도선교사들에 대한 파송 일정과 아래와 같이 정해졌다. 이들은 이미 LMTC(평신도선교사훈련과정)을 수료했거나 수료 중이며, 11월 16일(화)부터는 10일간 중현목양관(교역자 사역)에서 합숙 훈련을 하면서 강도높은 선교훈련을 받을 예정이다. 성도들은 이들이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잘 훈련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령의 도구로 준비되어 선교지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힘껏 사역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동역자된 기쁨으로 기도해야 하겠다. 한편, 11월 당회에서는 추후의 성도와 주님의 성도 2명을 단기 평신도선교사로 추가 선발하였다.

이름	파송국가	파송일	사역기간
권영일	수단	12월 27일	1년
추은희	수단	12월 27일	1년
박수인	수단	1월 31일	1년
오경진	수리남	12월 22일	1년
이수경	수리남	12월 22일	1년
한정은	수리남	12월 22일	1년
추진희	수리남	1월 14일	1년
이순주	우간다	12월 11일	1년
황경식	우간다	1월 중	1년

소망부 위로잔치 11월 13(토) 10시 갈릴리움

소망부 개설 26주년을 기념하여 준비한 감사예배 및 위로잔치가 11월 13일(토) 오전 10시부터 갈릴리움에서 열렸다. 예배(말씀: 김성관 위임목사)와 대학부의 특별찬양, 점심을 나누는 식탁의 교제와 특강(강사: 김정순 전도사), 그리고 만복교제 및 선물 증정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금번 위로 잔치를 계기로 소망부 지체들이 진정한 천국의 소망을 소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도로 세워가는 일꾼들로 계속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도들은 사랑의 관심과 기도로 함께해야 하겠다. 한편, 예배 후에는 브니엘중창단과 제3교육위원회 위원들이 특별찬양으로 함께하였다.

경찰전도회 추계 영성훈련

전도위원회의 소속 경찰전도회 전 회원은 11월 16일(화) 충북 월악산으로 경찰전도회 추계 영성훈련을 떠난다. 강사는 김인식 목사이다.

군입대자에게 사랑의 성탄 선물 보내기

군전도회는 우리 교회 지체들 중 군입대한 형제들과 진중제례를 받고 해당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있는 군장병들에게 성탄 선물을 보내기로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까이 알고 있는 지체들 중 해당자를 알고 있는 성도들은 군전도회(내년과 296)로 연락하면 됩니다.



김창목 목사

성찬식을 설정하신 예수님

(누가복음 22:7-20)

“...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

1. 전지 전능하신 지혜로 성찬식을 설정하신 예수님

유월절 양을 잡아 피 흘려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화목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성찬예식을 설정하셨습니.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임이 이른지라”(7절)

성찬예식을 설정하실 때에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전지 전능하신 지혜로 성찬예식을 설정하셨습니.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이르시되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통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라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게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라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배운 큰 다락방을 보이리라 거시라 예비하라 하시네”(8-12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 “선생님, 미리 약속하셨습니까?”라고 한 번쯤 확인하는 질문을 할 뉼 했는데, 아무것도 묻지 않고 믿고 갔습니. 그랬더니 그 말씀하신 대로 물통이를 가져가는 사람을 만났습니.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 안으로 갔더니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물이 보였습니. “주인님, 예수님이 명령하셨는데 예수님과 우리 제자들이 유월절 잔치를 할 수 있는 방이 어느 방이요?” “이 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넓고 좋은 다락방에 자리를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 예수님은 성찬예식을 설정하실 때에 이처럼 전지 전능하신 권능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대로 착착착 진행해 나가셨습니.

2. 성찬을 원하고 원하셨던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미리 예비하신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자리해 앉으셨습니.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 유월절 잔치를 너희와 먹기를 원하고 원한다”라고 말씀하

셨습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14-15절)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미리 설정하시기로 마음 속으로 경영(敬營)하시고 유월절 잔치를 베푸실 때를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에 따라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보내 주셨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도록 사람의 몸을 쓰시고 종의 생활을 사셨고, 마침내 인간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하여 죽음을 앞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이러한 죽음을 통하여 만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길이 열릴 것을 바라보시며 기쁜 마음으로 유월절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면 피하고저 애를 씁습니. 그런데 기쁨으로 성찬을 준비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어려운 일을 만났거나 기쁜 일을 만났거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지를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던 심정을 가건다면,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고생했지, 내가 손해 보겠지, 억울하지라는 좁은 생각을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찬예식을 설정하신 것을 놓고 이러한 예수님의 심정을 먼저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19-20절)

예수님께서는 함께 둘러 앉은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릴 때에 찢어질 나의 살과 흘릴 나의 피”라고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3. 성찬에 올바르게 참여함으로 받는 복

그러면 이 성찬예식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것일까요? 신령한 은혜를 마음 속에 사도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러보는 마음을 품고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 악마가 손을 못 대는 보호가 옵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를 마신 자는 세상 사는 동안에 악마가 손 못 대는 보호를 받습니.

둘째로, 자라납니. 믿음의 자라납니. 소망의 자라납니. 사랑의 자라납니. 그의 생활이 자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 준비가 됩니. 10년 전 예수 믿기 시작한 그때, 10년 전 장로로 임직받던 그때, 30년 전 목사로 안수받던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니 믿음, 소망, 사랑의 자라났는지 자라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는지 혹은 좀먹고 있는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라나면 열매를 맺습니. 자라나지 못하면 열매를 맺 못습니. 다 무섭습니. 성찬예식에 올바르게 참여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영적 힘이 자라납니.

셋째로, 꽃 피는 기쁨이 옵니. 마음이 편안해납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꽃이 됩니.

넷째로, 열매를 맺습니.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나니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예수님의 피를 생각할 때에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에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부터 사랑하는 생활이 바뀌어서 예수님부터 사랑하는, 사랑의 순서가 정해납니.

다섯째로, 성찬예식에 올바르게 참여한 자는 예수님이 이 시간에 재림하시되 하늘나라에 간다는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됩니.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 가는 맑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땅 위에서 흘린 눈물, 억울한 일들을 모두 다 건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깁니. 천국이 보이고 천사가 마중나오는 것을 믿으니까 세상 떠날 때에 겁과 두려움이 없습니.

충원의 모든 성도들은 성찬예식에 올바르게 참여함으로 이러한 복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4. 성찬예식에 참여하는 마음 자세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성찬예식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감사하면서 참여해야 합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 받고 의인으로 인정받고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옥을 면한 것 감사하고, 천국에서의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땅과 눈물과 피를 흘려서 온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로, 회개하면서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교만한 죄가 없는지, 욕심의 죄가 없는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고 시기하는 죄가 없는지를 살피고, 범한 바 이러한 죄들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과 욕심입니다. 나보다 나은 것을 뵈어 내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뵈어 업신여기는 죄는 살인죄와 같은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회개하면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헌신을 결심하면서 참여해야 합니다.

물질의 집일조뿐만 아니라 생명이지도 바친다는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을 결심해야 합니다.

넷째로, 내 힘과 결심이 약하오니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세상 마칠 때까지 그리스도 주시기를 부탁하는 기도를 하면서 성찬예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5. 결 론

이렇게 성찬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은 내도나도 할 것 없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헌신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 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성광 목사

신실한 감사 (요한복음 6:3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
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감사와 우리의 현실

시편에는 여호와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물론, 신약에서도 감사는 계속됩니다. 바울은 다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나의 발나간구하는 가운데 위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적부터 섬겨 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딤후 1:3)라고 적었습니다. 편지의 서두에서부터 바울은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감사가 계속되기를 위저 않고 생각했습니다. 초대 교회의 부귀가 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IMF, Y2K, 핵재앙의 위험, 막대한 의료비, 인터넷 상에서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음란물, 세계적인 경제침체, 가정붕괴, 급증하는 이혼율 등 수많은 시련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속에서 우리들도 초대 교도 성도들을처럼 주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생명의 떡 예수님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 6:35).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 등장하는 ‘내가 곧... 이다’라는 일곱 번의 위대한 자기 중 첫번째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를 통찰할 뿐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를 통하여 우리는 자라고, 영육간에 성숙해 갑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이나 지키시는 팔을 펼치셔서 그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따라서 옛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끝 단 한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하시는 하나님

자연만물이 있듯이 생명의 호흡, 그 놀라운 창조는 세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온해 있는 그 피조세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성경은 육체 마흔두 번 겹쳐서 여호와께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감사

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굳이 자신의 감정에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실한 감사는 우리에게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룬 사업적 성공, 새로 구입한 집, 대학에 합격한 자녀가 우리의 영혼에서 초아나는 감사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그의 자녀가 된 우리의 놀라운 특권을 생각하는 그곳에서 진정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시라는 사실만이 우리의 감사의 진정한 열쇠입니다.

죽음 넘어서 인도하는 생명

예를 들어, 저같이 목사도 섬기는 어떤 분이 죽어가는 암환자의 침대 옆에 서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심각한 환자는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슬픔의 눈물을 머금은 가족들이 주변에 둘러서 있습니다. 이 심각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통을 통과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에 대하여 무지한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통의 의미에 대하여 충분히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는 바로 그를 위해 예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많은 죄의 대가를 감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통의 과정을 통해 통쾌하게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 증거와 감사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진정한 감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시라는 사실만이 우리의 감사의 진정한 열쇠입니다

상황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아마도 영원한 생명과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이 상황을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제 죽어가는 환자께 진리와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영원한 안식도 없다는 복음의 진리를 증거합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심을 가르칩니다. 지금 죽어가는 그 환자 앞에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합니다. 그가 만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그의 심령에는 진정한 감사가 가득해질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명백한 현실인 죽음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현실이지만 누구든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것을 넘어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믿음의 표현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에게”(로 5:34). 그리스도인은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진정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난을 피해야 할 것은 다른 길이 없다고 물음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떻게 손을 내밀고 계신지, 그가 어떻게 우리의 발을 떼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고난의 계곡을 건너게 하시든지 이를 이웃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까지 감당기 어려운 고통을 감수하거나 매우 심각한 문화를 겪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역경에서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은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생명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통해 구원의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00여년 전, 이 땅을 밟은 소수의 미국 신자들을 통해 전해진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천만을 유혹하는 그리스도인을 안에서 깨워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열릴 거대한 기쁨의 잔치를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다.

바비 이야기

“바비”라고 하는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찾아서 감사를 충고 머리로 고백했습니다. 그는 미식축구 전과도 교회 경주를 갇는 한 정도의 막대한 실력을 지녔고, 고등학교 시절 내내 스타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는 육식과 자동차, 두 동을 골라야 만

났고, 가는 곳마다 특별대접을 받았었습니다. 그는 돈과 명성을 얻었고, 순탄하게 그치지 않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에게는 사랑받는 다섯 살 아래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동생이 형 바비에게 와서 자기 동생 생일 선물로 보여 주었고, 바비는 그를 병원에 보냈는데, 진단 결과는 말기 암이었습니다. 앞으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동생은 불과 5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비는 자기에게 동생을 구할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해야 했습니다. 바비의 인생은 갑자기 모든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바비의 친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우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에 대하여 말해 주었는데, 바로 그 말씀이 바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슬픔은 사라지고 그의 마음에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해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로 비록 그레함의 심장군에 참여하여 수많은 장애인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심을 전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의 감사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도록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족을 부양하는 일이나 직장의 일, 혹은 학업으로 쉴 겨우 하신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이 만나는 문제들은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굶주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이 떡이 없이는 결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떡을 먹고 계십니까? 우리는 불평에는 능숙한 반면, 진정한 감사의 생활에는 초보자들입니다. 진정한 감사의 삶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생명의 떡을 지속적으로 드셔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만이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하면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고 우리의 영적 이해가 깊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의 것을 쥐고 계산한다고 해도, 그 마지막은 무덤일 뿐입니다.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받으시고 승리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복음이 합이 선전됩니다. 생명의 떡을 받아 먹으시고(요 11:23-24), 예수님의 종인이 되십시오. 거기에서 진정한 감사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

세계 선교

우리 교회에서는 그 동안 단기선교를 통하여 아시는 물론 멀리 아프리카까지 복음을 전파하고자 많은 젊은이들을 파송하였습니다. 낯선 문화 속으로 던져진 젊은이들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였으며, 교회는 이러한 젊은이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단기선교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가야 할 선교의 방향을 한 걸음, 한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더디 행하여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도 있었으나 뒤돌아 보면 하나님이 움직였습니다. 이제 단기평신도선교사 파송으로 하나님께 또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단기 평신도 선교사와 함은 평신도로서 6개월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선교사로 헌신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이번에 단기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받은 9명의 젊은이들은 스리랑카, 파키스탄, 케냐 단기선교에 참가하여 선교사로서의 비전을 확인하였으며, 올해 평신도참가훈련원(LMTC)을 수료하게 되어 총회로부터 단기 평신도선교사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다닌던 직장을 사직하고, 학교도 휴학하며,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9명의 단기 평신도선교사들은 올해 12



단기 평신도선교사 파송을 앞두고

“성령께서 부르시고
친히 걸음을 인도하시니
성령의 사역으로
계속 사용되길...”

월부터 내년 1월 사이에 2-3명이 한 팀을 이루어 수리남, 수단, 우간다, 스리랑카로 파송받아 전도 사역 및 의료 사역, 어린이 사역, 컴퓨터 사역, 미용 사역, 행정 사역을 감당합니다. 선교사라고 불릴 만기에는 나이도 어리고 신앙적으로도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의 젊은이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젊은 한 대를 드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도 귀합니다.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선교지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2. 순간순간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체험하도록
3.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대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4. 현지인 협력자들이 많이 생기도록
5. 현지인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6.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도록
7.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족들에게 평강을 주시도록

이들을 향하여 어떤 이들은 “갔다 오면 뭐 할거니?” “요즘 같은 때에 직장 그만두고 어떻게 할거니?” “시집은 언제 갈거니?” “교회에 끝까지 책임질 것 같으니?” 등등의 부정적인 말들로 근심하는 마음을 갖게도 합니다.

출발을 앞둔 젊은이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위원회)

신령한 예배

열린 예배, 닫힌 예배?

최근 각 교회마다 ‘열린 예배’ 바람(열풍?)이 불고 있다. 열린 예배란 무엇인가? 한다는 주장을 펴는 이들은 ‘시대가 변했고, 기존의 예배는 변한 시대의 정신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이들이 막무가내로 열린 예배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예배의 중심인 하나님의 임재와 성도의 드려짐을 더욱 극대화 시키기 위해 현대적 심성에 호소력을 가지는 예배 형태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배의 형식을 간소화하고 현대적 감성에 어울리는 찬송과 보다 자유로운 개성적 전도, 다양한 방식의 성도간의 교제 등으로 구성되는 좀더 미형식적 예배를 장려하고 적극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열린 예배’는 뜨거운 논쟁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격렬한 찬반 속에 제정가의 파장을 일으켰다. 이유는 ‘열린 예배’라는 발상 자체가 성경적 근거를 충분히 가지지 못하고 현실적 타협, 혹은 급격히 강화되고 있는 교회 정제 현상을 조금씩 극복하려는

문제는 예배의 형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향해 열려야 하는 것

교육지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다. 또한 ‘열린 예배’를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예배방식이 가지는 심오한 신학적 깊이와 영적의미를 너무 과소평가 혹은 평가절하한다는 것 때문이다. 따라서 ‘열린 예배 무용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기존의 예배 형태가 훨씬 더 수준고요 또한 이 형태를 통해서도 얻어지지 생명의 있는 예배, 현대인의 심성에 강력하게 호소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칙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명백히 ‘열린 예배’ 재고론자들의 의견이 더욱 합당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배의 형태는 성경에서 시작되어 궁극한 교회 역사를 통해 형성된 총체의 산물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다습한 필요를 지나치게 의식하여 앞다투어 예배 형식을 바꾸어 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문제는 ‘내가 예배를 향해 열리는 것’이다. 내 존재 전체가 주님의 발 아래 놓여지도록 준비되어 열려질 때, 비로소 예배의 본의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열린 예배가 아닌 예배가 곧 닫힌 예배라고 할 수는 없다. 형태는 자유로워도 오히려 심령은 더욱 이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시도록 내가 예배를 향하여 열려지도록 주님께 기도드리자.

(편집)

비로소 얻은 기쁨

장대설 (장남)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은 최근 몇 년 동안 나에게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 중천교회의 신장 생활이 10년을 넘어서면서 ‘이전 교회를 옮길 때가 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 ‘예배’에 대한 나의 신앙은 몇 년간 고야말로 ‘무생’과도 같았다. 전 교회의 예배는 내 안에서 눈물을 쏟아내고, 그 목사님은 내 심령을 쫓아내 놓는 말씀을 전하시는 때에 우리 교회에서 건넨 공간에 울리는 오르간 소리와 찬양대의 화음뿐이란 말인가? 라는 미련한 질문을 토해내며 때로는 일주일 만에 두세 교회씩 다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본분 인용이 잘못되었고 사생활이 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 내교야 말겠다 다짐하며 성경과 여러 주석 및 언어성경을 뒤적이며 모듬을 이루 뿌려놓은 나의 옛 모습 가운데 하나였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녹아 내렸을 때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 이라는 말씀 한 단락만으로도 내 영혼은 기쁘고 기쁘고 기쁘다

그러던 나의 교만을 여지없이 두 조각 냈던 것은 역시 예배였다. 감히 모교회의 예배를 비롯으로 교만 가득한(개인의적으로 사탄 내 에지로웠던 것 같다) 모습으로 어느 부흥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나에게 “상한 갈대를 가지 않으면서 버티는 등불을 끄지 못하오시니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그 말씀은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내리침이었다. 그때 눈물과 콧물을 한 움큼 쏟으며 감히 기쁨 부어 세우는 목사님까지도 판단하고 격려했던 나의 패역한 모습도 떠올랐고 그 즉시 나는 집으로 가서 우리 담임목사님께 용서

를 구하는 편지를 띄웠다.

이후로 한 동안 5주예배에서의 내 모습은 늘 두려움에 떠는 어린 양이었고 목사님의 설교는 아직도 그리스도와 의 친절한 만남을 가지지 못한 우리를 향해 배후에 커튼 그리스도를 해결할 도래내 시는 앞다투어 울려지기 시작했다. 슬프게 난 지금도 5주예배를 드릴 때 늘 본분을 오르내려 주고 원통바다를 무릎 위에 파 놓은 새 물결이 온 때마다 찢어지고 또 찢어지는 한평생을 계속하고 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같은 교만을 떨쳐버리고 같은 하나의 은혜는 깨 하는 하나의 은혜는 더 이상 드러지는 예 때에 참석하고라도 들지 않고 내 영혼이 예배 가운데 드러져야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말씀과 찬송의 가사를 묵상하고 기뻐하며 나를 쫓아기를 쉬지 않는 것이다.

주일에 예배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주일을 범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 그런 가운데 한 주를 사는 모습이 얼마나 답답할지를 생각해 보자. 재미와 개인적인 만족을 좇는 예배를 찾지 않고 때론 힘들고 때론 고생스런 예배시간이지만 내 교회에서 예배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어느 곳에서도 예배는 마한가치라는 생각을 하며 저금 나는 나를 버린다. 내 신앙적 속구와 주도권을 버린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녹아 내렸을 때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 한 단락만으로도 내 영혼은 기쁘고 기쁘고 기쁘다. 그런 예배를 향해 내 영혼은 늘 갈고 갈고 갈고 갈라라.



“아빠! 저 은주예요”

천 은 주(청년부, 75쪽)

난 무뚝뚝한 딸이다. 아빠에게 전화를 해서는 항상 “아빠, 저 은주예요”라고 시작해서 엄마, 아빠, 동생들의 안부를 묻고 “저도 잘 지내요”라고 말한 후 끊는다. 시외 전화인데도 공중전화에서 100원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너무 답답할 때, 한참을 혼자 울고 난 후에, 또는 혼자서 보내는 6년이라는 객지생활에서 부대끼며 난 어김없이 아빠에게 전화를 건다. 그리고 부뚝뚝하게 안부를 여쭙어 본 후 끊는다. 그것만이 모든가 충분하다.

우리 아빠는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 시골의 작은 읍소재지, 강항 지역에서 보이는 작은 집자가, 그곳에서 우리 아빠는 10년째 목회를 하고 계신다. 내가 교회에 놀 그랬듯이 사람을 참 무력하게 만든다. 충헌교회처럼 멋진 찬양대도 없고 오케스트라도 없고 활판 찬양 프로그램도 없다. 그곳에는 항상 그 자리에서 변함없는 성도들과 반목되는 예배만 있을 뿐이다.

언젠가 집에 내려갔을 때였다. 아빠는 몹시 지쳐보이었고 일주일까지 부터 있었다. 부엌에서 엄마에게 지나가듯 이유를 묻자 엄마는 “말도 마라, 교회를 새로 지으

려고 땅을 사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다.” - 우리 교회는 50년의 역사를 가졌다. 지금 교회가 너무 오래 되어 교회를 새로 짓기 위해 3년 넘게 기도하고 헌금했다. - 한 번도 싫은 내색, 힘든 소리 하지 않으시는 아빠를 떠올리며 난 정말 너무나 속이 상했다. 그리고 그렇게 아빠를 힘들게 하는 게 우리라는 생각이 들어 더욱 마음이 아팠다. 우리 집은 딸만 다섯이다. 지금까지 지나가는 말로도 한번도 아들 없음의 서운함을 비치지지도 않은 우리 아빠에게, 딸 다섯이 한 방에 모여 TV를 보고 있으면 들어오시다가 “우리 딸이 이렇게 많았구나” 하고 웃으시는 아빠에게 만약 내가 아이이었다면 지금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릴 수 있었을까.

신앙이후부터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라는 질문을 참 많이도 들었다. 나는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빠와 같다고 말한다. 언젠가 아빠가 보내신 편지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실히 교회에 헌전함”의 말이 써 있었다. 아빠는 내가 내 삶에 소홀할 때, 벗어나고 싶을 때 나를 붙드는 이유였다. 하나님 역시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에게 아빠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시는 분이시다. 이제 나 역시 하나님과 떨어지려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 항상 변함없이 내 곁에 계시는 아빠와 하나님을 나는 사랑한다.

잠이 들지 않는 날마다 기도한다. “우리 딸 다섯이 아빠의 어깨를 누르지 않도록 두 주세요. 우리 다섯 딸들의 현실적인 걱정들이 아빠를 너무 지치게 해서 아빠가 해야 하는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아빠의 기도제목이 우리로만 채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부탁 주세요. 그리고 제 삶이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10월에 주신 은혜에 감사

김 복 순(청년부, 73쪽)

올 해 들어 육체적으로 심상찮은 신도들이 늘었다. 늘 몸무게가 무척 빠지면서 모든 일은 생각뿐 몸은 계속 쉼을 원했다.

가족들은 걱정한다 못해 그 모든 것이 지나친 교회일 때문이라며 내 자신이 초래한 일이라고 하였다. 나의 지체들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죄송하며 나 자신도 괴로운 시간이었다. 점점 내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면서 모든 것이 무거운 것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 괴로운 시간들은 오래 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상대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의의함을 빨리 풀고 싶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방관해주시겠을 것이다. 그 때 마음이 건강 감사를 받자라는 결심으로 나타났다. 의사 선생님의 문진에 내 마음을 건강과 불안으로 휩싸였다. 두려운 마음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기도하였다. 검사 결과는 매우 양호함이었다. 병원을 나오면서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렀다. 회개와 감사와 화해의 눈물이었다는 것이다. 병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일까? 장들기가 힘이 들었는데, 잠을 편하게 잘 수 있게 되었다.

식사 후 나는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된다. 가족들이 챙겨준 보약과 병원진료담장 언니가 사준 영양제, 그리고 여름에 친구가 사준 비타민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감사받은 후배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고후 4:6).

요즘 도로에서 제법 추운 날씨에도 곳곳하게 피어 있는 국화와 나무들의 은빛이는 겨울나기 준비를 볼 수 있다. 때를 따라 절실하게 순종하는 자연을 보면서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야 하는지 생각을 해본다.

“나의 영혼아 잠잠해 하나님만 바라라 내게 나의 소망이 진로 쏘아하니” (사 25:1).

아와예배를 다녀와서 아름다운 창조물 앞에서 울려 퍼진 찬양

최 윤 석(청년2부)



그 요일 늦은 저녁 밤새 정동진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아름다운 일출을 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오래간만에 일상생활을 벗어나 자연을 접한다는 기대감으로 비록 피곤은 하였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였다.

그동안 친했다가 생각하였지만 회원들과 나누는 이야기들 속에서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 수 있었고 좀더 가까워지는 느낌과 하나님이 우리 모임에 함께하심을 느꼈 수 있었다.

수다스럽게 떠들던 밤, 졸기도 하던 시 도착한 정동진. 새벽 3시 30분이었다. 버스를 주차시키고 도착한 곳은 조각공원이었다. 밤바다의 파도가 새창에 물러오도 차다한 바람이 불려왔지만 그곳의 경치는 일품이었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목사님과 청년회원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손을 잡고 찬양을 드렸다. 질박 위에 새운 멋진 펜션가게의 야경도 멋있었고, 조각공원의 작품들도 아름다웠지만,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자연 앞에서는 비교될 수가 없었

다. 우리는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다. 그리고 새벽에 어둠이 미명으로 바뀔 무렵, 모두 모여 목사님의 인도로 새벽예배를 드렸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을 드릴 때에는 가슴을 통통하게 하는 감동이 있었고, 이어진 일출의 장관은 나의 마음을 마냥 넓고 크게 하였으며 나의 입을 막게 하는 기적의 역사와도 같았다. 비록 날씨가 흐리서, 또한 강수를 잘못 잡아서 자제히 보지는 못했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바치는 것까지보면 조용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다시 삼척의 환선굴을 보러 갔다. 약 3-40분쯤을 올라가면 막 단장이 돌기 시작하여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리나 마음 속에 켜든 세상의 때가 빗겨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하나님의 지으신 자연의 장관과 인간이 만든 인공적인 조형물의 조화가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을 생각나게 하였다. 하나님께 우리들의 결에서만 느끼다가 손수 지으신 자연을 보고 있노라니, 보다 넓은 세계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주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으리라 한다.

임기를 마치면서

제 자리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 영 목(청년2부, 구부회장)

먼저 지난 1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며 높이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

급변 초정전도관치 주제가 “주여 나를 중심으로 세 주소서”였는데, 이를 보고 은혜받았던 지난 일이 되살아났다.

나의 가족 중에는 말씀과 기도생활을 열심으로 하시는 어머니와 그 신앙을 본받아 복사님이 되어 사역하고 있는 형이 있다. 하지만 나는 형과는 달리 교회 주변을 방황하는 어려서든 학생시절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날 퇴근길에 작은 저하실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고 있었다. 나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 회장에 참석하여 첫째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은혜를 받았고, 둘째날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부귀를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셨다. “주여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시라, 주여 내게도 사명을 허락하시라.”

그 후 나는 청년부로 등록하였고 주님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나 부족한 나에게도 많은 봉사의 기회를 허락하셨으며, 내게 감당기 어려운 직에는 동역자도 보내 주셨다.

올해에는 청년2부 부회장으로 주님

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부회장으로 처음엔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하였지만 몇 개월이 흐른 후 나는 교만해서 내가 교회 일을 너무나 잘하고 있으며, 청년2부 일들을 내가 다하고 있다는, 또한 내가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착각)을 가진 적도 있었다. 그때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다. 청년2부는 회장이나 부회장 등 몇몇 앞에 선 자들이 열심으로 잘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회원들이 있기에 청년2부가 살아 움직이고 교만한건 아니게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우리 회원들을 돌아보니, 그런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많았다. 너무나 많은 우리 회원들이 주님께 기도하며 청년2부를 사모하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부회장 임기를 마치며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목사님, 장로님, 교사님들, 그리고 청년2부의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나는 이제 주님께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나를 중심으로 세 주소서.”

전도, 어렵지만 하고 보니...

이혜숙(권사, 6교구)

전도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교구 목사님은 몇 개월 전부터 교구 공동원 잔치준비를 하시면서 전도 대상을 위한 끼 음식이라도 하면서 기도하고, 조식만 선물이라도 가지고 찾아와라 하셨다. 그러나 전도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늘 걱정했는데, 누이를 전도할까 하다가 용기를 내서 우리집 부근에 있는 아파트와 상가를 돌아다녀 봤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나간다고, 또 어떤 사람은 집에 나간다고 말을 덧붙이게 했다.

예전엔 아는 사람들에게 성경, 찬송을 사 주면서 여러 번 전도도 했지만 몇 달 지나고 나오지 않고 있어 연락하면 바빠서 나오지 못한다고 하여 생각다 못해 우리집에 가끔 오시는 분께 접근하여 "예수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면 편하다"고 만날 때마다 예수 믿을 것을 권면하며 성경, 찬송을 사드렸다.

그래서 지금은 주일에 꼭 교회에 가도록 하고 새가족부에 등록시켜 잘 다니게 하다가 이밖에 학습까지 받게 되었다. 물론 남편도 나오고 있다. 그들은 이번에는 직장 관계로 학습은 받지 못했다. 앞으로 세례반을 때가 지도 하겠다.

이렇게 되기까지 1년이 되었는데, 이번 전도를 통해 전도 잘하는 사람은 참 위대하고 존경스럽게 느껴졌다.

평안과 화목 주신 주님께 감사

전양숙(이혜숙 권사로부터 전도받은)

예수 믿고 난 후 내 마음이 평안함을 느꼈다. 무엇보다도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교회 나오고 화목을 이루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교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은혜받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교3의 시간들을 잘 싸워낸 친구들에게

있저께 편의점을 들렀다가 판매대 위에 있는 많은 종류의 '엣'들을 보았다. 세상의 친구들이 엣을 사주며 멀리 가고 싶어 함을 알고 격려한다. '실수하지 말고 좋은 성적을 내라'고, '기도하면서 침착하게 그 시간들을 살면 하나님께 좋은 성적 주실거야'라고 단순하게 격려하면 편안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아 몇 글자 적어 본다.

수능 시험을 치르는 것이 말 그대로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 왔던 것들을 평가 받고, 그제 대학에서 '수학' 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해 보는 과정으로 주어진 시험이었으면 좋겠는데, 막상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 갇혀서 어른들과 친구들은 그 시험에 더 많은 의미를 얹어 놓고 그 속에서 우월 의욕을 갖는 것 같다. 시험을 잘 쳐서 좋은 대학을 가면 그 사람의 경력이 보장되어지고, 그동안의 생활들과 성실함을 증명해 주고, '모범생'이 되어버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속삭이듯 보면서, 그 가치관에 너무 얽고 경매하기를 강요하거나.

하지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수능시험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 시험을 잘 치르면 못치르면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들을 향해, 그 결과와 상관 없이 우리를 향해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시험에 임해보자. 그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불안해 하고 애쓰는 것보다, 그 결과가 어찌 되었건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향해 감사할 줄 아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너희들에게 이 시험은 '세상이 주는 생각'들 속에 휩싸여 '시험에 시험 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는 은혜 속에 휩싸여 시험과 상관없이 감사에 드느냐'의 싸움으로 요약할 수 있겠네. 그리고 시험을 두고 그동안 애써 주신 부모님과 믿을 가운데 자라게 하신 선생님들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는 멋진 친구들이 되길 부탁할게. 지난 수련회에서 3학년들이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개선이 쉽게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로 증명되는 시험이 되어지기를 기도한다.

애들이, 내가 한 가지 선물을 할게. 시험 끝나고 금요일 밤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벌게. 예수 믿는 친구들이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시험을 끝내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의 인도하심에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동안 받은 바 은혜들을 함께 정리하는 거야. 어머니? 바로 앞에 놓인 작은 문제를 보지 말고 더 크게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애들이 파이팅! 승리!

열마 전 동일한 싸움을 싸웠던 권으로부터
조제 민(전도사, 고등부 지도)

성령님이 인도하신 17명

황학규(집사, 2교구)

참으로 작고 아무 쓸데 없는 죄인에게 해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온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 있다. 어려울 때마다 어려움을 하나씩 해결해 주시고 우리 부부의 기도를 들어 주셔서 도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할 뿐이다. 하루는 길거리에서 비가 쏟아지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자고 외치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를 보면서 한 사람이라고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보답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었다. 마침 총력전도를 한다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로 받아들여졌다.

우선 대상자를 택하기 위해 집사와 기도했다. 사업에 변화를 주셔서 직원이 많다 보니 그들 가운데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주님을 믿지 않았지만 주님 믿는 배필을 만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잘 살고 있는 직원들도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기로 작정했다. 아내와 딸도 협조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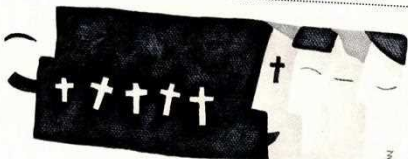
서로의 바쁜 시간이지만 틈틈이 예수를 전했다. 나도 바쁘지만 기술자들은 도급 제이기에 전도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총력전도 기간 동안 손해보는 것은 회사에서 책임 보상하겠다고 했다. 처음엔 2-3명이었으나 나중에 17명이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한 일이다.

몇 사람은 우리 교회에 나왔고 나머지도 교회 다니겠다고 약속했다.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셨다. 씨를 뿌리며 거두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성령께서 17명 모두를 끝까지 잘 거두어 주시리라 믿고 기도드린다.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인가 보다"

권기혁(황학규 집사 통해 전도받은)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용기와 기회가 없었다. 마침 사장님께서 전도를 하셨다. 우리 같은 기술직은 사실 시간 내기가 어렵다. 사장님께서 모든 것을 감안하고 여러 도로 도와 주시고 인도하셨다. 동료들과 사장님을 따라 믿기로 했다. 교회에 와보니 너무 좋았고, 식당에서의 만찬도 너무 감사했다. 다들날이 주일이었는데, 설교 말씀이 너무 마음에 들어 달아 은혜를 받았다. 말씀이 좋아서 우리 가족은 모두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인가 보다.



시험을 앞에 둔 후배들에게

소운정(대학부 2학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시험에 대한 불안함과 결과에 대한 부담감들이 없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물론 잘 해나가고 있는 후배들도 있었지만 과거의 나처럼 불안해하고 떨고 있을 후배들을 생각하면서 욕의 고백을 다시 묵상해 보는 것이 좋을듯 싶어서 이렇게 짧은 글을 쓰게 되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일의 시험을 바로 닦았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루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도리라' (욥 23:10-14)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계획하신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을 잊어버리는 때가 많지만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은 변함이 없으시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담대하게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다. 물론 시험이 앞에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소망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들의 어떤 모습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소심 짓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들을 믿고 기대하면서 그 믿음을 담대함으로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과 같은 것들을 잘 경계해 왔었지만 앞으로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이끄심을 믿고 소망하면서 그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들을 하길 바란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모두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반응할 수 있도록 선배로서 기도할게. 그럼 평안해.

지체들 소식

유치부
지각!

지각이 뭐냐구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로 약속된 예배시간에 늦는 것도 지
각인 거지요. 우리는 이제 지각하지 않
기로 굳게 굳게 마음 먹었어요.

유치부에서는 11월에 행사가 참 많
아요. 오늘(14일)은 지난 주 성경이야기대
회 예선에 이어서 본선을 치를 거구요.
마지막 주일인 24일에는 '새 친구 초청
잔치'가 있어요. 이를 위해 선생님들도
우리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많
은 새 친구들을 우리 유치부에 보내 주
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
세요. (한유리 통신원)

유년부

'새친구야 반갑다'

'새친구 초청 전도잔치'를 마치고

지난 10월 31일 있었던 '새 친구 초청
전도잔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
사함으로 마쳐졌다. 그동안 노력했던
수고와 기도의 열매로 35명의 새 친구
와 17명의 잃은 양을 찾을 수 있었다. 또
한 3주 이상 결석한 어린이들에게 선생
님들은 염서와 전화로 사랑과 관심을
표시하고 같은 반 친구들도 보고 싶
다는 염서를 보내자 평소 자주 결석하던
친구들도 많이 나와 집회실을 가득 채
웠다. 이날 새 친구들은 손에 풍선을 들고
두 줄로 입장하고 선생님과 친구들
은 색색 깃발을 흔들며 힘차게 환영해

주었다. 앞으로 새로 나온 친구들이 예
수님을 바로게 알아가고 유년부는 더
욱 힘써 노력할 것이다.

(윤숙희 통신원)

초등부

아쉬운 헤어짐 준비

지각 고치기에 부모님들의 협조가
급선무

초등부에서는 99년도를 마감하면서
기념 촬영이 한창입니다. 1년 동안 같은
반 친구로, 선생님과 만나 함께하며
지냈던 시간들을 기억하고 추억으로 남
기기 위해 반별 사진과 파별 사진, 또 학
년 사진으로 나누어 찍고 있습니다. 학
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친구, 선생
님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결석하
지 않게 도와 주십시오.

교회학교 전체적으로 벌이고 있는
'지각 안하기 운동'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11월 7일) 초등부
에서 10시 30분부터 지각생을 체크해 보
았더니 예배에 참석하는 학생의 3분의
1이 넘는 학생들이 지각을 해서 아까
고쳐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린이들이 혼
자 오지 못해서 부모님 예배 시간에 맞
춰 오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었는
데 학 부모님들께서 어린이 예배 시간은 10시
30분전 것을 기억하시고 조금 일찍 출
발하셔서 어린이들이 지각하지 않고 예
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

사하겠습니다.

(이미숙 통신원)

중등2부

경동교회 교사들 내방

장충동에 위치한 경동교회의 중등동
부 선생님 두 분이 우리 중등2부를 탐방
하러 오셨다. 선생님들은 경동교회 중
등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
하여 각 교회의 교육 과정을 배우러 순
례하는 중이라 하셨다. 그런데 우리들
이 오히려 그분들로부터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생동감 있는 열정'을 배
웠다. (손은경 통신원)

7교구

이웃 초청 잔치



11월 9일 화요일 오후 7시 강동구민
회관 대강당 3층에서 150명의 태신자를
포함해서 총 530명의 교구식구들이 참
석한 가운데 이웃 초청잔치가 있었다.
예수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며 길을 잃

은 양처럼 살 수밖에 없는 이웃들에게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모
인 귀한 자리였다.

구원회관을 꼭 세운 그곳에 예수님은
살아 계시고 역사하셨다. 아름다운
사회자들의 목소리는 부드럽고도 찬란
하였다. 식사와 정성껏 준비한 찬양팀
의 찬양과 율동이 있었고 독창(박경희
집사), 중창(황다아주창단) 순서로 이어
레크리에이션과 행운권 추첨으로 한 형
제 자매로 친교할 수 있었다. 이어서 성
극 '돌아온 탕자'가 무대에 올려졌는데
열아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
유로 죄인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리아전
도회의 연기가 뜨겁게 전달되어 눈시울
을 적시었다.

태어난지 인생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노인들에게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를
묻고, 이어서 소망부 전신자들에게 동
인한 질문을 통해 주님을 아는 자와 모
르는 자가 누구도 편이하게 다름을 확
인한 후 7교구 지도 김병택 목사와 대담
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하나하나 파헤
쳐 들어가면서 복음을 제시하는 방식으
로 제작된 영상산책지는 교구 식구나
태신자들에게 큰 감동과 함께 복음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 대담에서 김
병택 목사는 예수님만이 구원임을 확증
시키는 단호한 메시지를 전하였다.

(7교구 통신원)

내 입의 찬송
나의 참 좋은 친구

강 여 경(중등2부 교사)

"주님,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당신의 성전으로 저
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새벽마다 당신을 만날 수
있는 일이 아무 일 아닌 것 같아도 제겐 작심이 필요했습
니다. 그러나 이런 작심보다는 주님이 한 번 숨겨 불러 주
시는 일이 얼마나 더 큰 은혜인지 오늘 이른 첫 새벽에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되었음에도 당
신이 합당할 때에 저를 불러 주셨으리라 마음껏 믿습
니다."

작년 가을,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새벽기
도회에 주님의 초대를 받았다. 세례를 받기 한 달 전
 즈음이었다. 세례를 앞두고 내 삶 과연 세례를 받고 주님
의 충실한 자녀가 될 수 있을지 망설이던 때였다. 어느 날, 전혀 그런 적이 없었
는데, 새벽 2시에 불현듯 잠에서 깨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갖추어 입고, 아예 출
근 준비를 하고서 교회로 나왔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언지 모를 힘이 이끌
려 나서는 교회로 갔다.

"죄짐 많은 우리 구주 아찌 좋은 친군지 걱정 금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
세... 487장 찬송을 부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왜 눈물이 그칠 줄 모르는
것일까? 나는 단박에 알 수 있었다. '참 좋은 친구'가 내 곁에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친구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그동안 알
지 못했을까? 그는 늘 내 곁에 있었는데, 나의 아둔함이 이렇게 뒤늦게 알아채다
니..."

요즈음엔 나의 무겁고 큰 짐까지도 아무런 불평없이 지어 주시는 그에게 늘
감사하며 산다. 그러나 가끔씩 투정을 부리기도 한다. 상대의 마음 깊은 곳까지
제대로 헤아릴 줄 모르는 초신자의 어린마음을 탓이리라.

이제는 조금 더 성숙된 모습으로 초신자의 때를 벗어야 하는데 쉽지 않다. 늘
부족한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나 이전만큼 허전하고 자신감 없지는 않다. 왜
냐하면 나의 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나의 친구가 늘 내 곁에 계시기 때문이다.

오늘도 난 나의 참 친구를 알기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물·매·들

뜻이 있는 음성

정 언 회(집사, 5교구)

언어를 한 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뜻이
있는 음성이다'라고 정의한다. '음성'이란 형식에 반드시
'의미'라는 내용이 담겼을 때 비로소 그것은 언어가 된다.

잠시 크리스천들의 언어생활에 대해 생각해보자. 믿음만
있으면 말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개떡같이 말하면 꿀떡같이 알아 들으라'며 상대방에게 화
자로서의 책임을 떠넘긴다. 듣는 사람 역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들어왔던 말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매
해 아무런 거부 반응이 없다. 이것은 기도할 때 특히 더 심하
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예배 중 기도 순서가 되면 흔히 하
는 '지금은 처음 시간이니 마치시는 시간까지...'라는 말이
있다. 그러면 결국 그 앞의 순서에 예배에 포함되지 않는 셈
이다. 또 상대방을 지칭할 때 '병든 자, 상처입은 자, 고통 중
에 있는 자'라는 말도 옳지 않다. 자(者)라는 말에는 상대방
을 존중하는 의미가 없다.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에게 무의식
중에 천대(?)를 받는 셈이다. 물론 이 말은 고의적으로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런 의사가 내포되어 있는 이런
어투의 언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한다면 결국 이는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
는 명백하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모든 것을 가르치
셨기 때문이다. 말씀의 의미는 가슴이 떨리도록 세밀하고 적
확하다. 그토록 위대한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언어
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바
르게 알기 위해 언어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자칫 믿음생활을
지켜한다는 요소로 숙단하고 있다. 그러나 날카롭고 정확하
고 논리적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의 언어 습
관을 살펴 보는 일은 꼭 필요하다.

